

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박 환 희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노원구 제2선거구 박환희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10월 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현재 서울특별시에선 종묘(1995), 창덕궁(1997), 조선왕릉

(2009)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, 한양도성에 대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히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릉의 경우는 40기 중 8기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.

현재 서울특별시에에는 종묘(1995), 창덕궁(1997), 조선왕릉(2009)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, 한양도성에 대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히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릉의 경우는 40기 중 8기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개발이라는 명목에 떠밀려 주변 환경이 현저히 바뀐 선릉, 헌릉 등은 외딴섬처럼 고립되게 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도 조시개발이 유적의 경관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.

‘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(2020.2)’과 같은 법 시행령(2021.2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세계유산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. 서울시가 인류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,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것입니다.

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논의 경향이 ‘등재’에서 ‘등재 이후의 보존·관리’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문화재 등재에도 힘쓸 뿐 아니라 등재된 문화재가 제대로 유지, 보존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조례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.

세계유산 등재 노력과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, 세계유산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사업을 정하고 세계유산 등의 멸실·훼손구간 복원에 대해 노력할 것과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세계유산의 홍보, 교육에 관한 사항, 보존·관리 및 홍보활동에 대한 포상규정을 담았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